

[특별기고] 깨끗한 환경이 만드는 농업의 가치

전업농신문 | 승인 2024.06.05 09:10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한국환경농학회 회장)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국제사회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매해 새로운 주제로 환경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환경의 날'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 파괴 등과 같은 지구촌 전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차원의 환경 보호, 생태계 복원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Our Land, Our Future, We are Generation Restoration(우리의 땅, 우리의 미래, 우리는 회복의 세대)'이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숲을 조성하고, 물과 토양을 되살릴 수는 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회복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하며 그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필자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혹자는 환경의 의미를 정의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환경과 무관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존재하며, 우리 또한 환경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을 인간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속한 세계이자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환경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영국 남극연구소(BAS)는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아무리 줄여도 서남극 빙상 대부분이 21세기 안에 녹아내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기후환경 위기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인했다. 자연을 무분별하게 소모한 인류에 대한 지구의 엄중한 경고이지만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국제사회가 지구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선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은 토양과 물, 기후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영농이 불가능해지면 인류 역시 생존할 수 없다. 우리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다시 말해 물과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며 환경 회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인식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농가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선택형 직불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 정책이 농업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려면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를 품고 있는 농업과 환경을 '나의 문제로 여길 때, 인류는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존재로서 자연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농업이 보편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더디고 미미한 성과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때다. 환경을 살리는 농업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가 생태계 공존의 건강한 터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